



문의 :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 사무처
전화 : 02-535-7085
팩스 : 02-535-7084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소식

업무협약차 IFLA 본부에 출장



〈NOC와 IFLA 본부 회의〉



〈엄근섭 주 네덜란드 대사 초청만찬〉

2006년 3월 11일, 조직위원회 한상완 집행위원장과 이현주 사무처장 및 김도미 사업총괄팀장이 네덜란드로 출장, IFLA 본부 측과 대회 준비에 관한 업무협의를 마치고 18일 귀국하였다.

출장기간 동안 IFLA 사무국을 비롯한 본부 측 인사들과의 수차례 회합을 통하여 대회 예산 내역의 전면적 조정·개막식의 규모와 내용·“문화의 밤” 행사 및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등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IFLA 이사를 겸하고 있는 한상완 집행위원장은 이사회에도 참석하였다.

이번 출장 협의에서는 대회 예산의 구체적 내역과 총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행사 내용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계획과 준비 상황에 대한 본부 측의 지지와 만족이 언명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한편, 이사회가 개최된 15일에는 네덜란드 주재 우리 대사관이 엄근섭 대사 초청 만찬회를 개최하였는데 IFLA의 이사 및 주요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사무총장 일행 방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차기회장 클라우디아 룩스(Claudia Lux, 2007 - 2009), 사무총장 피터 로(Peter Lor) 등 IFLA 임원단 2인이 2006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4박 5일의



〈대회진척상황을 검토 중인 NOC와 IFLA 임원단〉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IFLA 임원단의 이번 방한은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올해 8월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장 및 문화행사장, 전시장 등의 관련시설 답사와 조직위원회 진척상황 점검이었다.

주요 시설을 답사한 IFLA 임원단은 조직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시설적인 부분이나 진척상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대회를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확신할 수 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또한, 클라우디아 룩스 IFLA 차기회장은 이번 서울대회는 전통과 현재의 만남이라는 면에 있어 과거의 그 어떤 대회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

IFLA 임원단 방한과 관련하여 온북TV(<http://Onbook.TV>)에서는 주요 일정 동행취재 및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영상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fla2006seoul.org>)의 공개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일행 방한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는 시오미 노보루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대한 일본 도서관계의 이해와 관심 고양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시오미 노보루(塩見 昇)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과 미야베 요리코(宮部 頼子) 국제교류사업위원장 및 마쓰오카 카나메(松岡 要) 사무국장 등 3명을 2006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초청하였다.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일행은 방한 기간 동안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대회장인 코엑스(COEX)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정독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방문하였다. 또한 시오미 노보루 이사장은 2006년도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일본도서관협회 임직원들은 조직위원회 및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서울대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서울대회의 참가 안내 회보 발간 및 『도서관잡지(圖書館雜誌)』에 〈IFLA서울대회에의 초대〉라는 타이틀로 서울대회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여 참가를 독려하면서, 보다 많은 일본 도서관인들이 서울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관단을 모집하고 있다.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들에 국고 보조금 확정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조직위원회에서는 서울대회의 공식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된 37개 도서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금 규모는 관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각 100만원이며, 이를 활용하여 방문 도서관 안내 팜플렛 제작, 현수막 제작 혹은 도서관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차량대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6서울대회가 열리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물론이고 대회기간 전후 기간동안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된 37개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및 수도권 도서관들에 외국에서 참가한 도서관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도서관협회에서는 대회기간 이전인 8월 14일부터 19일에 걸쳐서 공식 방문프로그램과는 별도로 30명 정도의 방문단이 몇 개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도서관총합전을 주관하는 Japan Culture측에서도 방문단을 모집하여 한국의 도서관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조직위원회 자료분과위원회(위원장 : 윤희윤, 대구대 교수) 회의가 2006년 3월 31일(금) 오후4시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도서관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 배포될 『한국의 도서관』 책자의 초고 수정에 대한 부분과 영문 번역작업에 있어서의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부터는 김석영 기술위원장을 편집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자 발간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참석자 : 윤희윤위원장, 김영석, 윤혜영, 장덕현(이상 위원), 오현주(사무처)

120개 전시부스 예약 완료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전시회 부스 예약이 예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단지 도서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 및 정보에 관련된 모든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을 위한 대회이다.

동 대회에는 약 150여 개의 세계 유수의 기업 및 기관들이 참가하여 도서관 및 정보화 관련 용품 및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관의 새로운 시스템 및 연구 개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한다.

현재 서울대회 전시회에는 3M, GEAC, OCLC, Thomson Gale, 미국도서관협회(ALA), 영국도서관협회(CILIP), 일본도서관협회(JLA), 싱가포르국립도서관 등 세계 유명 도서관 관련 기관 및 우수 기업에서 120여개 부스를 예약 완료 하였다.

또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국내 우수 기업 및 도서관·정보관련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서울대회 전시회 참여를 독려코자 전시회 안내 자료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배포하였으며, YBM시사를 비롯한 20여개 국내 기업이 전시 부스를 예약 완료하였다.

전시회 참가 신청은 별도의 마감 공고가 나가기 전까지 진행되며 부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ifla.org/IV/ifla72/exhibition.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자원봉사자 선발



〈자원봉사자를 선발 중인 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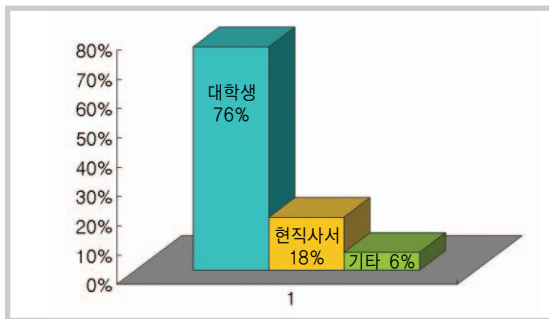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언어능력, 국제행사 경험 유무, 전공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실시 한 결과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였다.

선발자의 지원 언어별 분포는 영어가 8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순이며, 직업별로는 학생 76%(문헌정보학전공38%, 외국어 전공 17%, 기타전공 14%, 대학원생7%), 현직사서 18%, 기타 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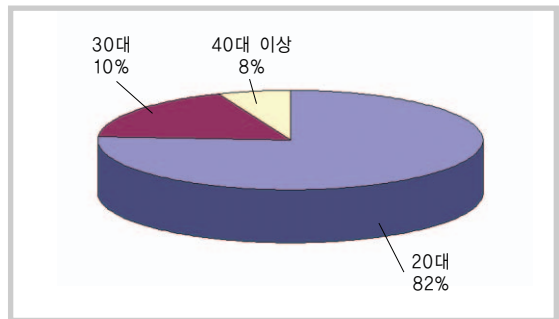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78%이며, 다음으로 지방이 20%, 해외거주 2%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82%, 남성 18%로 여성 비중이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0%, 40대 이상이 8%를 차지하였다.

국제행사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선발자의 절반 이상이 VIP의전, 국제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고, 그 외에도 외국인과 재외교포 선발자도 4%를 차지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2006.8.20 - 8.24, 서울, 코엑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2006서울WLIC자원봉사 선발자 현황(직업별)〉



〈2006서울WLIC자원봉사 선발자 현황(연령별)〉

*** 협회소식 ***

이사회 2006년 제1차 회의

- 일시 : 2006년 3월 20일(월) 16:00 - 18:30
-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한상완(회장), 김태근(부회장), 강재룡, 권재윤, 김윤실, 김청웅, 남태우, 박준식, 방준필, 송기호, 이경구, 이은철, 조영추(이상 이사), 강형일, 윤성로 (이상 감사)
- 안건심의 : 1) 2005년도 사업실적
2) 2005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3) 2006년도 사업계획(안)
4) 2006년도 예산(안)
5)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자동상실 회원 승인
6) 제38회(2006년도)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7) 회장 선출 방식 및 이사회 구성 방안 변경 (안) 심의
8) 한미 도서관 교류협력에 관한 일

〈회의 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이경구 사무총장 : 이사 15명 중 13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림.
- 한상완 의장 : 2006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함.

2. 지난 이사회 회의록 낭독

- 사무총장 : 2005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유인된 회의자료를 참고로 낭독함.
- 의장 : 2005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문함.
- 2005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3. 안건 심의

- **안건 1 : 2005년도 사업실적**
- 사무총장 : 2005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함.

- 의장 : 2005년도 사업실적보고에 대한 의견을 물음.
- 2005년도 사업실적 보고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 안건 2 : 2005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

- 유태형 관리지원과장 : 2005년도 결산을 보고함.
- 윤성로 감사 : 2005년도 수입, 지출 결산에 관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함. 개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함.
 - 1) 부족한 재정에 큰 원인으로 되어 있는 개인회비 징수 대책과 동시 협회 전반 업무의 적극적 홍보대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회계 결산 시 향후엔 유무형자산 개념을 도입, 부채항목도 부채의 유무에 상관없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 2) 회원들 대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회장선출 방법 개선과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회칙이 전향적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며,
 - 3) 협회 운영상 본연의 목적에 균형성이 부족하다 하여 내재된 대학도서관의 탈퇴 움직임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며,
 - 4) 그 외 회관건립기금의 진행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총회자료에 부록 형식으로 협회 정관의 관련조항을 필히 첨부하길 요망함.

- 의장 : 2005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에 대한 의견을 물음.

- 2005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 안건 3 : 2006년도 사업계획(안)

- 사무총장 : 2006년도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 의장 : 2006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물음.

- 2006년도 사업계획(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 안건 4 : 2006년도 예산(안)

- 관리지원과장 :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함.
- 의장 :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 제위 : 지구협의회 지원액 인상을 위해 권익협력 추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회원배가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전제로 개인회비 예산을 상향 조정할 것을 결의함. 상향조정됨은 사무국에 위임함.

· 안건 5 :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자동상실 회원 승인

- 사무총장 : 2005년도 1월~12월 사이 우리 협회 신입 회원 가입을 신청한 단체 및 개인의 명단과 2005년도 회원탈퇴를 신청한 단체 및 개인의 명단을 발표한 후, 입회 및 탈퇴 자동상실 회원 승인을 요청함.
- 의장 :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자동상실 회원 승인에 대한 의견을 물음.
- 회원의 입회 및 탈퇴자동상실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 안건 6 : 제38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

- 사무총장 : 표창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38회 한국 도서관상 수상자에 대해 설명함.
- 의장 : 제38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제위 : 감사패는 도서관 발전 환경 조성 차원에서 수상자 결정을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함. 아울러 추후 감사 패 관련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함.

· 안건 7 : 회장 선출 방식 및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안) 심의

- 사무총장 : 회장 선출 방식 및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안)을 설명함.
- 의장 : 회장 선출 방식 및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 제위 :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 2가지 안(직선제, 현행 간선제 유지)에 1가지 안(현행 간선제를 유지하되 평의원 수를 8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이를 총회에 부의할 것을 결의함. 아울러 회원들이 충분히 공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홈 페이지 사전 공지, 장단점 설명 등)를 취할 것을 권고함.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안)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안건 8 : 한미 도서관 교류협력에 관한 일

- 사무총장 :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상한 '한미 도서관대회'에 대해 보고함.
- 의장 : 한미 도서관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제위 : 국제교류위원회의 검토사항(개최 주기 등)을

보완하여 진행할 것을 승인함.

- 권재윤 이사 : 아시아 도서관인들의 모임인 CONSAL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지역의 지구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함.
- 박준식 이사 : 현재 3개 지구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을 최소 3백만원에서 상향조정하며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차등지원 할 필요가 있음.
- 남태우 이사 : 2006서울WLIC 개최를 계기로 올해를 회원배가운동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음.
- 윤성로 감사 : 각 기관장에서 소속 직원의 회원 가입 현황을 공지하고 회원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4. 폐회

-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제57차 정기총회 개최

우리 협회 제57차 정기총회가 3월 31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협회 회원 537기관(참석 293기관, 위임 244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방한중인 시오미 노보루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과 미야베 요리코 국제교류사업위원장 및 마쓰오카 카나메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시오미 노보루 이사장은 축사를 전했다.

총회에서는 2005년도 정기회계 감사보고, 2005년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장 선출방식 및 이사회 구성방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신기남 2006서울WLIC 조직위원장에 대한 명예사서증 수여와 제38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이 열렸다.

[총회 관련 자료(2005년도 사업실적보고, 회원현황, 2005년도 결산보고,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일반사업계획(안), 2006년도 특별사업계획(안)), 한국도서관상 수상자명단(공적요약 포함)등은 본지 98~133쪽 참조.]



〈회의 내용〉

1. 개회

· 이경구 사무총장 : 참석 293기관, 위임 244기관 총 537기관으로 단체회원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제57차 정기총회가 성원되었음을 알린 후 개회를 선언함.

— 국민의례 —

- 한상완 회장 : 개회사 낭독
- 시오미 노보루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 축사 낭독
- 신기남 2006서울WLIC조직위원장 : 축사 낭독

2. 명예사서증 드림

· 한상완 회장이 신기남 위원장에게 명예사서증을 드림.

3. 제38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 한상완 회장이 한국도서관상(감사패 포함)을 시상함.

4. 2006서울WLIC 홍보 프리젠테이션

· 정동열 국제협력위원장이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홍보내용을 발표함.

— 10분간 휴회하다 —

5. 2005년도 정기회계감사보고

- 한상완 의장 : 2005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감사에게 요청함.
- 강형일 감사 : 2005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감사결과, 회계준칙 및 재무정을 준수하여 처리한 바, 집행과정 등이 적절하였음을 보고하고 지도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① 개인회비 징수대책과 동시 협회 전반 업무의 적극적 홍보대책 강화
- ② 유무형자산 개념 도입
- ③ 회장선출 방법개선과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정관의 개정

6. 2005년도 사업실적보고

- 의장 : 2005년도 사업실적보고를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이경구 사무총장 :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2005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함.
- 의장 : 2005년도 사업실적보고에 질문이 있는지 묻다.
- 의장 : 2005년도 사업실적 보고 중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05년도 사업실적 보고 원안이 승인되었음을 공표함.

7. 2005년도 결산보고

- 의장 : 2005년도 결산보고를 관리지원과장에게 요청함.
- 유태형 관리지원과장 :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2005년도 결산을 보고함.
- 의장 : 2005년도 결산보고에 질문이 있는지 묻다.
- 의장 : 2005년도 결산보고에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05년도 결산보고가 승인되었음을 공표함.

8. 200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2006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사무총장 :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2006년도 사업계획(안)을 설명함.
- 의장 : 2006년도 사업계획(안)에 질문이 있는지 묻다.
- 의장 : 2006년도 사업계획(안)에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이 승인되었음을 공표함.

9. 2006년도 예산(안) 심의

- 의장 :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관리지원과장에게 요청함.
- 관리지원과장 :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함.
- 의장 : 2006년도 예산(안)에 질문이 있는지 묻다.

- 광동철 회원(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① 과거 2년간 개인회원이 1천 여명 정도 감소한데 따른 회원배가에 좀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함. ② 기부금의 상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 질문함.
- 사무총장 : ① 최근의 급격한 회원감소는 2004년 총회 결의사항인 '회원자격 취득유지 상실에 대한 개정 시행'(장기미납회원에 대한 특별조치) 결과이며, 회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② 도서관 대회 전시회 부스 설치에 따른 기부금 등 내역을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서원기 회원(대구남부도서관) : 권익협력추진비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없는지 질문함.
- 관리지원과장 : 예측할 수 없는 사업(예, 2006년 사서교사 신규 임용투쟁 등)이 많은 항목이라 부득이 예산서에 상세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결산서에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답변함.
- 의장 : 2006년도 예산(안)에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이 승인되었음을 공표함.

10. 회장 선출 방식 및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안)

- 의장 : 회장 선출 방식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사무총장 :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회장 선출 방식 변경(안)을 설명함.
- 거수 투표 결과, 회장 선출 방식을 제2안(평의원회 확대안)으로 결정함.-
- 의장 :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사무총장 :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안)을 설명함.
- 거수 투표 결과,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안)을 통과시킴.-

11. 폐회

-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2006지방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회의

- 일시 : 2006년 3월 28일(화) 11:00 - 13:00
- 장소 : 우리협회 사무총장실

- 참석자 : 고희식(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안찬수(책읽는 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이경구 사무총장, 유태형 관리지원과장(이상 사무국)
- 안건 : 1) 지방선거 정책제안 추진 방안 논의
2) 2006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추진 방안 논의
- 회의내용
 - 정책제안 자료집과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함.
 - '지방선거시민연대'에서 제시한 4가지 정책제안 중 문화 부문에 도서관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념적인 부분에 그쳐있으므로 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방선거시민연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정책제안 자료집은 우리 협회에서 초안을 제작한 후 추후 회합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하 책사회)에서는 초안에 들어갈 기초 자료를 협회로 3월 31일까지 보내주기로 함.
 - 초안은 4월 15일경 완료하고 추후 회합일자를 결정기로 함.
 - 추후의 일정 및 대안론 대책 등은 초안 작성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정책자료집은 독서실태조사, 도서관 통계자료, 활용분포도, 외국과의 비교 등을 수록하여 지역사회의 아래(시민사회)로부터의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논의함.
 - 본 사업이 도서관, 독서문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추진하자고 함.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현재 도서관이 처해있는 상황을 널리 알려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함.
 - 언론에 논설, 사설, 칼럼의 형태로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2006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는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협회에서 제시한 기획안을 출협과 책사회에서 검토한 후 차기 회합에서 논의하기로 함.

제42회 도서관주간 행사 실시



매년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도서관주간 행사가 올해에도 4월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전국 회원도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도서관주간 주제는 공모를 통해 “도서관,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황현경)로 결정되었고, 표어는 “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관에 있어요”(정병진), “꿈이 열리는 창, 도서관”(이인경) 으로 선정된 바 있다.

회원도서관에는 포스터와 표어가 각각 배부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별도서관으로부터의 행사계획과 결과보고 접수는 생략하였다. 대신 우리 협회 홈페이지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게시판을 통해 각 도서관의 행사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 담당 강원영, ☎02-535-4868, <http://www.korla.or.kr/event/notice/list.asp?BBSCode=N0002>)

이경구 사무총장,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직원들에게 책 선물

우리 협회는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World Book & Copyright Day)을 맞이하여 20일(목) 사무국에서 이경구 사무총장이 사무국 직원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이 행사는 직원들이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또는 갖고 싶었던 책을 조사하여 선물하는 것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행사는 직원들이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꾸준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산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관련 대책 협의 회의

- 일시 : 2006년 4월 14일(금) 10:00~11:00
- 장소 : 우리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김태승(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조현양(한국문헌정보학회 총무), 이란주(한국비블리아학회), 서진원(한국도서관·정보학회 부회장), 최은주(한국문헌정보학고수협의회회장), 문성빈(한국정보관리학회), 한성택(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회장), 이용남(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경구 사무총장(사무국) [설립연도순]
- 안건 :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배경 및 추진현황 보고
2) 관련 대책 협의
- 회의내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배경 및 추진현황 보고 (사무총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지원 위원회(가칭)” 결성 논의
-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과제팀” 과 앞으로 구성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국가 도서관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단체를 구성기로 함. 이 단체 구성에는 협회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기로 함.
- 위원회의 명칭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지원 위원회”(가칭)로 하고 위원장은 이용남 교수로 선임.
- 지원위원회구성 단체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고수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한국기록관리학회 [설립연도순]
- 실무 T/F팀을 구성기로 함. 위원은 이용남, 김태승, 곽동철, 박철완, 윤희운, 김지봉, 이경구로 하고 사무총장이 섭외기로 함. 첫 회의는 4.19.(수) 15:00에 열리고 결정.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 지원 위원회(가칭)” 활동 논의.
- 협회 회원에게 알리는 글 송부 및 도서관메일링리스트와 언론 등의 홍보활동으로 도서관계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냄.
- 전국 도서관계에서 청와대, 문화관광부 등에 이번 위원회 조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주기를 바람.
- 5월 중 세미나 또는 전국 도서관장 회의를 보고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관련 단체 및 각 협의회에 협조 의뢰
- 위원회 내의 급한 사항은 이메일 등으로 교신하기로 함.
- 구체적인 추진방향 설정 등은 실무 T/F팀에 일임함.

* 전문위원회 *

어린이청소년봉사위원회, 2006년 제1차 회의

- 일시 : 2006년 4월 6일(목) 11:30-14:30
- 장소 : 노원정보도서관 관장실
- 참석자 : 박미영(위원장) 박은자, 송영숙, 최진봉, 황태숙 (이상 위원), 박경아 자료미디어 과장(사무국)
- 안건 : 1) 청소년용 추천도서 목록 작성
2)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시상
- 회의내용
 - 1) 어린이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사례 추천 및 기준안 제시
 - IFLA 주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소개
 - 2) 청소년 권장도서목록 선정
 - 각 단체에서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을 수집하여 주제 순으로 분류, 빈도 분석, 정독 후 목록 선정
 - 3) 어린이 전문사서연수 프로그램 개발
 - 년 단위 상/하반기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교육관련 행정지원은 사무국)

4) 동화 그림책 우수한 작품 추천

- 세계의 상 수상작 선정 및 후보작(IFLA) 추천
- 어린이청소년우수프로그램 추천은 최진봉 위원 중심으로, 어린이 전문사서연수 프로그램 개발은 송영숙 위원 중심으로, 청소년권장도서목록선정은 박은자 위원, 황태숙 위원, 박미영 위원장 중심으로 진행하며 각자의 초안은 4월 20일(목)까지 이메일로 교신한 후 이를 보완하여 4월 4째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기획위원회, 2006년 제3차 회의

- 일시 : 2006년 4월 6일 10:00-11:00
- 장소 : 우리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윤희운(위원장), 문영철, 조영추(이상 위원), 이경구 사무총장, 유태형 관리자원과장(이상 사무국)
- 안건 :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 정리
2) 회장 선출방식 및 이사회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
3) 2006지방선거 정책제안에 관한 일(공공도서관 위원회와 연석회의)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이경구 사무총장 : 위원 7명 중 3명 참석과 4명 위임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림.
- 윤희운 위원장 :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심의

- 안건1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 정리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에 관한 일에 대하여 설명함.
- 위원제위 :
 - *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위원회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키로 함.

[건의 방법]

- ① 위원회 설치에 관한 도서관계의 요청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과제

팀에 전달한다.

- ② 위원회 설치에 관한 도서관계의 요청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측 관계자(문화관광부 장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를 면담한다.
- ③ 언론에 환영과 기대를 담은 자료를 게재한다.

[건의서 내용]

- ① 위원회 설치는 도서관정책이 문화 분야의 중요한 핵심과제라는데 초점을 맞춰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함.
- ② 위원회 설치의 우리나라 정보시설의 확충과 정보화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데 핵심부서라는 것을 부각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로 구성함.
-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안건2 : 회장선출 방식 및 이사회 구성방안 논의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회장선출방식 및 이사회 구성방안에 대한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
- 위원제위 : 사무국에서 기초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를 추후 검토하기로 함.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기획위원회와 공공도서관위원회 연석회의

- 일시 : 2006년 4월 6일 11:00-12:00
- 장소 : 우리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윤희운(기획위원장), 문영철, 조영추(이상 기획위원), 이치주(공공도서관위원장), 신경숙, 이상, 정문택, 조정화(이상 공공도서관위원), 이경구 사무총장, 유태형 관리지원과장(이상 사무국)
- 안건 : 2006지방선거 정책제안에 관한 일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최선언

- * 윤희운 기획위원장이 사회를 맡아보기로 함.

- 이경구 사무총장 : 위원 15명 중 9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림.
- 윤희운 위원장 :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심의

- 안건 1 : 2006 지방선거 정책 제안에 관한 일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2006 지방선거 정책 제안에 관한 일에 대하여 설명함.
- 위원제위

- * 자료집을 제작하기로 함.

[자료집 내용]

- ① 총론과 각론 2부분으로 구분하며, 전국 공통의 과제와 지역적 문제를 구분하여 수록
- ② 총론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통계자료, 시도별 비교표 등을 수록하고,
- ③ 각론에서는 16개 광역 지역별자료를 게재한다.
- ④ 각론에서는 각각의 지자체장의 임기동안의 비교표 등 후보자들에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활용 방법]

- 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를 공략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약사항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 패널 참여, 사회자에게 자료 보내기 등
- ② 공공도서관 각 지구협의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하자.
- ③ 광역자치단체는 공문(자료집 포함)을 발송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지역공공도서관(지역 내 대표 도서관)을 이용하여 홍보.

[원고 작성]

- ① 사무국 : 총론, 지역별 현황 자료 수집
- ② 공공도서관위원회 : 총론 부분, 각론 부분
- ③ 기획위원회 : 최종 원고 정리 작업에 참여

[일정]

- ① 지역별 현황 자료 수집 : 4/11(화) → 공공도서관위원회에 전달 : 4/12(수)
- ② 공공도서관위원회 원고 작성 : 4/14(금)

③ 최종 원고 정리 : 4/18(화)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목록위원회, 2006년 제1차 회의

- 일시 : 2006년 4월 12일(수) 14:00 - 15:30
- 장소 : 우리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김태수(위원장), 기민도, 김은수, 김이경, 김정현, 이재선(이상 위원), 이경구 사무총장(사무국)
- 안건 : 1) IFLA 국제목록코드 전문가 회의 한국 대표자 추천에 관한 일
2) 기타 안건
- 회의내용
 - 안건 설명(김태수 위원장)
 - 제4차 국제목록전문가회의(IME ICC4) 설명(이재선 위원)
 - 안건 논의
 1. IFLA 국제목록코드 전문가 회의 한국 대표자 추천에 관한 일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와 협회(목록위원회) T/F팀 구성 권고
 - 국내위원회는 협회 목록분과위원회 위원 모두 포함하여 구성
 - 현장 쪽 전문가와 KERIS 직원, 법원도서관 직원을 추천할 것을 권고
 - 워킹 그룹마다 주제가 다르니,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서를 함께 구성하도록 권고
 - 내용과 의견, 논의사항을 해당 참석자에게 온라인상으로 게재, 최종안을 결정

* 협의회소식 *

공공도서관협의회,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공공도서관협의회는 3월 17일(금)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공도서관협의회 회원 도서관 관장 및 직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규약변경,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특별연구논문 발표, 우수직원 표창, 2006서울WLIC에 대한 홍보가 있었다.

* 국내소식 *

도서관정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지난 2월 27일에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상 최초로 도서관관련 정책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회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 김태근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 도서관 현안 문제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

지시사항은 3월 22일(수) 관보 제16217호에 게재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gwanbo.korea.go.kr/www/gwanbododata/2006/03/0322000000.pdf>]

(대통령지시사항 전문)

1.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향후계획 보고회의('06. 2. 27.)

지시사항

-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의 재조정 방안 검토

(지시사항)

-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서 사회·문화·복지 지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재조정하기 바람.
 - 즉, 사회·문화·복지 등을 지방에 대한 배정기준으로 삼아 지방자치행정의 방향을 전환토록 유도할 필요(검토이행사항 : 행자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추진

(지시사항)

- 위원회 일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소관 위원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고,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사무처와 같은 정책지원조직을 탄탄하게 구성할 것(검토이행사항 : 문화부, 행자부).

- 도서관 관련 예산확충과 기능 및 역할의 개선

(지시사항)

- 도서관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를 올해 중장기계획 전까지 정리할 것(검토이행사항 : 문화부, 예산처).

문화관광부, 출판유통산업 RFID 적용 표준안 Ver1.0 발표

문화관광부는 출판유통산업에 무선인식(이하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RFID 적용 출판유통물류시스템 표준안 버전 1.0' (이하 표준안)을 발표했다.

표준안의 작성은 출판사·유통사·서점·도서관 등의 출판 유관단체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출판유통산업 전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출판유통산업분야에서 RFID 시스템을 활발히 도입 중인 공공도서관계의 현행 체계를 포함하였다.

이번 표준안은 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출판물 고유 식별체계, 태그 저장 데이터 항목(국가코드, 발행자코드, ISBN, CIP번호 등), 운송용기 식별체계, 주파수, 태그부착 가이드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출판물 고유 식별체계는 현재 출판유통물류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품코드(이하 EPC : Electronic Product Code) 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기존 물류시스템을 RFID 및 EPC 네트워크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문화관광부와 (사)출판유통진흥원은 앞으로 출판유통산업계 단체 및 업체가 참가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표준안 배포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준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RFID기반 출판유통물류시스템의 구현 작업을 완성하여 2006년 6월까지 RFID 출판유통물류시스템의 구축과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하반기에는 RFID 시스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테스트 베드를 운영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간 공공도서관에 표준화된 RFID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계획'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총 730억원을 투자해 1,462개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는 '2006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2006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또한 올해 설치되는 학교도서관 규모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의해 1,200개,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산어촌 학교에 252개, 국립학교에 10개 등 총 1,462개의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고, 학생 1인당 장서수를 2005년 8.32권에서 올해 9.2권으로 확충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구성원 및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보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2006년 전국학교도서관대회를 6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2006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선정



정보통신부는 3월 16일(목) '2006년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의 과제를 발표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국가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식정보를 DB로 구축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보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역사문화·교육학술·산업경제 등 5개 부문에 총 43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430억원을 지원한다.

도서관분야의 선정과제에는 국회도서관의 '국회 입법활동지원관련 원문DB확충사업(2차)' 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DB시스템구축(2차)'

등이 있다.

정보통신부는 작년까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구축된 결과물 약 2억 5천만건을 지식 DB를 보유한 908개 공공·민간기관과 공동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과 민간포털인 파란·엠파스 등과 연계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문의 : 정보통신부 정보이용촉진과, ☎ 02-750-1223, www.mic.go.kr]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안」·「학생독서활동진흥법안」 공청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31일(금) 「학교도서관진흥법안」 공청회와 「학생독서활동진흥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으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관하여 이병기 교수와 박철완 교수가, 「학생독서활동진흥법」에 관하여 노명완 교수와 허병두 교사가 발표하였으며 국회의원 황우여(위원장), 이군현, 임태희, 기성조(한나라당), 유기홍, 이인영(열린우리당)의원이 참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http://educat.assembly.go.kr/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의원과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제정추진위원회'는 공동으로 3월 23일(목)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창조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마련되는 법안으로, 이번 간담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 내 공론화하고 국회와 지역문화 전문가 간 교류 및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진흥 기구 설치 ▲지역문화진흥 재원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근간이 될 ‘문화도시’ 관련 조항이 담겨 있다.

이광철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법안의 내용을 보강한 뒤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문의 : 이광철 의원실, ☎ 02-784-6271, 6297, <http://www.kwangchol.com>]

■ 프로그램

(사회)

이영환(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지역문화진흥
법제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발제)

- 문화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 김현모(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방안 / 김기봉(한국민족예술
인총연합 지역문화예술위원장,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추진위원장)
- 지역문화 진흥기관의 역할 및 관계설정에 대하여
/ 지금중(문화연대 사무총장,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위원)
- 지역문화 진흥 재원 확보 방안 등 기타 쟁점 조항에
대해 / 박인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실장)

**국립중앙도서관,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추진**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시아 지역 한국문화전파와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사서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실시한다. 참여하는 곳은 라오스 국립도서관, 몽골 국립도서관, 베트남

국립대학도서관, 필리핀 국립도서관이며 각각 1명씩, 모두 4명의 사서이다.

이 사업은 아시아의 대학도서관 및 국·공립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도서관 견학 및 교육 그리고 사서 실무연수를 주로 하며, 도서관업무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교육 및 문화체험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네이버와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자료의 활용 극대화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네이버(www.naver.com)와 3월 29일(수)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6층 회의실에서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일반인들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KOMARC DB 및 목차·원문 유무 정보)를 네이버에서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네이버 측과 다양한 도서관 홍보사업을 전개, 전국 도서관 온라인 지도 콘텐츠화 및 ‘아이러브도서관’ 사업 추진, 유관 방송사를 통한 ‘인기스타와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소개 및 자원봉사’ 방영 등의 이벤트 행사를 통해 국민독서진흥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국회도서관도 5월 말부터 네이버에 상서 6000여 권의 원문과 120만여 권의 기초 정보를 제공키로 3월 23일(목)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무선인식(RFID) 적용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은 무선인식(이하 RFID)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해 ‘RFID 적용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사업에서 사서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각 자료실에 RFID를 적용한 자가

대출기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열람통계 및 부가 서비스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도입하는 RFID 장비들을 활용해 자료이용 통계, 도서관 이용자 통계 등 경영정보시스템(MIS) 서비스 기능을 확대 구축하고, 기존에 구축한 MIS의 통계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정보를 통합하는 한편 통합정보시스템(KOLIS) 데이터를 적용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친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제2회 벚꽃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개최

국회도서관은 4월 14일(금)과 15일(토) 양일간 국회도서관 야외공연장에서 제2회 벚꽃과 함께하는 국회도서관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보이쳐(아카펠라)', '일렉쿠기(전자현악단)', '매직 조로(마술)', '여의도 챔버 금관중주단' 등이 참여하여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구로도서관, 관내 중·고교 도서관 이용법 순회 교육 운영



구로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청소년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고, 도서관을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구로구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법 순회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서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2006년도부터 구로도서관이 직접 제작한 교육안을 바탕으로 도서관 홍보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자료 검색 및 예약, 희망도서신청 방법, 문화프로그램 안내 등의 이용법을 교육한다.

구로도서관은 3월 9일부터 3월 22까지 구로중학교 42개반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로구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 2006 교직원 독서운동 추진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은 현장에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2006교직원 독서운동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북구도서관은 책을 읽고 싶어도 쉽게 도서관을 찾을 수 없었던 교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료를 북구도서관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만 하면 학교현장에서 자료를 받아 일정기간 활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대출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 사서가 권하는 책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2006교직원 독서운동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시간이 없어 평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본인이 직접 많은 시간동안 자료검색을 해야 했던 교원이나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익산 마동도서관, 독서체험교실 '우리! 도서관에서 놀자' 4월부터 실시

익산시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마동도서관에서 관내 5~6학년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독서체험교실 '우리! 도서관에서 놀자'를 운영한다.

북권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문화의집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독서체험교실은 매월 하나의 주제를 정해 책을 읽고, 만들기와 놀이, 자연탐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단순한 글쓰기와 토론수업이 아닌 책 안에서의 느낌을 자연과 생활 속에서 직접 비교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 '앗!! 3월 도서관에 가볼까요' 행사 개최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은 올바른 도서관 이용 지도와 독서 분위기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해 새학년 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앗!! 3월 도서관에 가볼까요'란 주제의 전시를 3월 17일(금)부터 28일(화) 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 마련했다.

전시품은 어린이문학상수상작과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 도서목록비치, 올바른 도서선택, 이야기는 귓속말로, 정숙한 독서분위기, 도서관 올바른 이용방법 등 각종 자료 및 사진 등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일본 천리대학 천리 도서관에 소장된 우리 전적을 정리한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해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 전적(典籍)의 현황 및 실체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해외 소장 전적문화재 조사'의 성과물이다.



천리도서관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유명하던 이마니시류(今西龍)가 경성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수집한 한국 관련 필사본·목판본·활자본 등 1,867종이 소장되어 있는

곳으로 국내외 학자들에게 자료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던 곳이다. 이 곳에는 고려시대에서 임란이전 목판본을 비롯하여 조선초기 을해자판, 초주갑인자판, 병자자판, 갑진자판, 채주갑인자판 및 조선후기 한구자판, 현종실록자판, 무신자판, 정리자판, 전사자판 등 다양한 종류의 한국본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마산시, '마산시 마을 도서관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마산지역의 마을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민단체 '마산시 마을 도서관 만들기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가 3월 23일(목)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도서관 지원조례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서 마을도서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창원시의 경우 지난 1994년 설립된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동마다 한 두개씩 모두 31개의 마을도서관이나 사회교육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비해 마산의 경우 시립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만 있을 뿐 마을도서관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각 동마다 마을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마산시가 최소한 창원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마을도서관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마을도서관 지원조례 청원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시 4개동, “한 마을 한 책 읽기 운동” 추진

창원시는 5개 창원시평생학습시설(중앙, 의창, 반지, 봉곡, 사림) 사회교육센터에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하여 “한 마을 한 책 읽기 운동”을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로 슬로건(봉림동 : 봉림동 사람들, 좋은책을 만나다. 반송동 : 책 너머의 세상, 독서 세계로 초대합니다. 중앙동 : 2006년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바로 이책)을 정하여 각 센터와 지역연대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 마을 한 책이 선정되면 연간 다채로운 행사 및 독후 활동으로 책 릴레이, 독서토론, 독서 골든 벨, 문학기행, 작가초청강연회, 작가에게 편지쓰기, 책표지 만들기, 나는야! 유명작가, 독후화 그리기, 동화책속 캐릭터 만들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대 미국학연구소도서관에 미국학 도서기증



주한 미대사관이 3월 24일(금) 서울대 미국학연구소도서관에 미국학 관련 도서 112권을 기증했다.

이 자리는 미 대사관 공보처에서 대학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기증식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참석했다.

기증된 도서는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미국학 연구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 미국학연구소, <http://plaza.snu.ac.kr/~astudies/>]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몽골국립대학교에 ‘한국학도서관’ 개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은 3월 26일(일) 몽골국립대학교에 ‘한국학도서관’을 개관했다. 몽골국립대학교 국제학부 신축건물 3층에 들어선 한국학도서관은 몽골에서는 처음 설립되는 한국학 전문자료센터로, 1천여권의 국내 간행 한국학 관련 도서와 컴퓨터 시스템, 열람시설 등의 물품을 전부 동아시아학술원이 지원해 설립됐다.

동아시아학술원은 2005년 6월 몽골국립대 국제학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몽골의 한국학 연구자 양성 등 학술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한국학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원 협동과정(동아시아학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한국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몽골국립대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기숙사 등을 후원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용 학교 중·고교 20곳 지정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10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를 ‘학교도서관 활용 중심학교’로 운영하기로 3월 22일(수) 발표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사업 4년차인 인천시에는 현재 시내 420여 개 초·중·고교 중 254개교가 디지털자료실이나 학교도서관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도서관을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활용수업, 협동수업, 독서 및 논술 프로그램, 책 축제, 도서관문화제, 도서동아리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 ‘선상독서체험학교’ 운영

부산교육청은 2006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5일 수업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6선상(船上)

독서체험학교'를 3월 4째주부터 7월 2째주까지 8회에 걸친 휴업일(매월 2, 4째주 토요일)에 운영한다.

이 행사는 해양도시 부산의 자연환경과 독서의 즐거움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로 부산 시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매회 5개 학교에 30명씩 150명을 부산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가자들은 배위에서 바다와 관련된 주제로 즉흥삼행시 짓기, 선상 독서 퀴즈대회, 희망 가득 담은 소망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부산항만 및 오륙도, 이기대, 광안대교, 해운대 누리마루 등 부산의 명소를 선상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김해교육연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해교육연대 학교도서관위원회는 4월 13일(목) 김해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현재 학교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프로그램

〈사회〉

고영남(김해교육연대 정책위원장, 인제대 법학과 교수)

〈발제〉

· 학교도서관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이미숙(경남학교도서관연구회장)

〈토론〉

- 박종훈(경상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
- 김주수(경상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 장학사)
- 손은경(영운초등학교 교사)
- 박선희(학부모)
- 김은숙(김해교육연대 학교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이에 앞서 김해교육연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김해 지역 56개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전국 평균 86%에 못 미치는 65%로 나왔으며 사서와 보유 장서 그리고 도서관 크기 등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 운영은 전문 사서의 부족으로 도서 담당 교사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교과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단순히 열람과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김해교육연대는 분석했다.

학도넷, 2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발족 2주년을 맞아 4월 15일(토)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1부에서는 여는 마당으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송혜민과 김주연 학생의 국악 공연이 있었으며 총회에서는 2006년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2007년 이후 학교도서관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문의: ☎ 02-336-7259]

■ 프로그램

〈주제〉

2007년 이후 학교도서관의 미래

〈사회〉

이성희(학도넷 공동대표)

<발제>

- 한윤옥(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토론>

- 김중성(학도넷 공동대표,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김경숙(학교도서관문화살림대표, 학도넷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 이덕주(송곡여고 사서교사, 학도넷 운영위원, 사서교사대표)
- 정윤정(휘경여고, 도서동아리 연합 도동리 임원, 학생대표)

LG상남도서관 개관 10주년 및 '책 읽어주는 도서관' 오픈 기념식 개최



1996년 국내 최초 디지털도서관으로 탄생한 LG상남도서관은 4월 17일(월)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이와 동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 유비쿼터스 도서관 '책 읽어주는 도서관' 오픈 기념 행사도 함께 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http://voice.lg.or.kr>)이란 시각장애인에게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로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이 핸드폰 및 PC를 통해서 도서관 서버에 접속해 음성으로 제작된 도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

LG상남도서관은 이 서비스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한국점자도서관과 제휴를 맺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 표준 방식의 음성전자도서를 제작하고 있다.

한편 LG상남도서관은 유비쿼터스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례를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과학기술 분야 전문 연구자를 위한 포털 사이트 ELIT(<http://www.lg.or.kr>)와 어린이 청소년 대상 과학 정보 사이트인 LG사이언스랜드(<http://www.lg-sl.net>)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LG상남도서관, ☎ 02-708-3707]

북코스모스, 도서요약 전문지 창간



도서요약 전문업체 북코스모스는 책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는 도서요약 전문지 '행복한 책세상의 등대지기'를 3월 13일 창간했다.

격주간 발행되는 이 신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도서의 요약본을 제공하며,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책 속에서 배우는 경영사례, 이달의 책 및 신간 도서 등도 소개한다. 또한 20만부로 전국 400개 대학 및 시립 도서관과 북코스모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200여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문의 : www.bookcosmos.com]

한국사회포럼2006, '국내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정보공유연대 IPLLeft는 '한국사회포럼2006' 기간 중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3월 24일(금) "국내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자유소프트웨어운동, 정보공유운동, 저작권법반대운동, 강제실시특허법개정운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짚고, 한국사회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비판



운동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지적재산권 비판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문의 :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Left 간사, ☎ 02-717-9551, 이원재 한국사회포럼2006 사무국장, ☎ 02-773-7707]

■ 프로그램

<사회>

양희진(정보공유연대 ILeft 운영위원)

<발제>

· 오병일(정보공유연대 ILeft 운영위원)

<토론>

· 강남훈(한신대 교수)

· 김지성(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김해민(노동자의 힘 활동가)

·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조동원(영상미디어센터 정책연구실장)

· 조정환(다중네트워크센터 대표)

‘Scopus Citation Award 세미나’ 개최

Elsevier Korea는 4월 4일(화)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CDL 지하 1층 국제원격회의실에서 ‘Scopus Citation Award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000개 이상의 국제적인 출판사로부터 출판되는 14,000종 이상의 과학·기술·의학·사회과학의 타이틀을 망라하는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 Elsevier 출판사)’ 를 소개하였으며 도서관 사서들의 역할증대의

방안으로 연구자들의 논문작성 지원방법에 대한 특별 워크숍도 마련했다. [문의 : Elsevier Korea, ☎ 02-732-8687, krinfo@elsevier.com, http://korea.elsevier.com]

■ 프로그램

· Welcome Speech & Elsevier Vision

/ Pascal Nieuwendijk, Elsevier 아시아본부장

· Scopus Citation & Quiz Award

· Scopus 소개 및 KERIS National License 가격조건

설명 / 김순 차장, Elsevier Korea

· 사서를 위한 “연구자들의 논문작성 지원법” 특강

/ 김형순(인하대학교 교수)

· 사서의 역할 확대 방안 -한양대학교 도서관의 “논문작성” 지원 사례발표 - / 김휘출(한양대학교 의학도서관)

한국정보과학회, 차세대 웹 기술 튜토리얼 개최

한국정보과학회 호남제주지부는 3월 31일(금)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에서 차세대 웹 기술 튜토리얼을 마련하였다.

이번 차세대 웹 기술 튜토리얼은 차세대 웹 기술의 핵심 요소를 전파하고 많은 연구 개발자를 육성하여, 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리로 온톨로지(Ontology), 시맨틱 웹(Semantic Web), 웹서비스(Web Services)와 시맨틱 웹서비스(Semantic Web Services)에 대한 최신 이론과 기술을 이해하고, 전문 연구자들의 심도있는 기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 [문의 : 류영현, ☎ 063-850-6749 http://www.kiss.or.kr]

■ 프로그램

· 온톨로지공학 입문과 시맨틱 웹 : 계층구조 및 발전동향

/ 이경일(saltlux 부사장)

· RDF/S 기초 개념 및 응용 / 김인철(경기대 교수)

· 표준 온톨로지 언어 : OWL / 한성국(원광대 교수)

· 웹서비스 : 기초 개념 및 응용

/ 민덕기(건국대 교수)

· 시멘틱 웹서비스 : 현황 및 전망

/ Dumitru Roman(DERI)

인터파크, '학교도서관 지원 프로젝트' 개최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3월 22일까지 학교와 개인참고서 구매왕을 선발하고 총 이천만원을 개인과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인터파크의 '학교도서관 지원 프로젝트'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참고서 구매가 많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기간 동안, 개인과 학교의 참고서 구매 누적금액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개인 구매왕을 뽑아, 참고서 판매비용의 일부를 학교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독서문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구매왕 1위는 진성고등학교로 학교도서관 지원액 500만원이, 2위 학생여자고등학교와 김포고등학교에는 각각 300만원이, 3위 상산고등학교, 삼일여자고등학교, 전주술내고등학교에 각각 100만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개인 구매왕은 별도의 응모 없이 자동 집계되어, 1위(1명) 30만원, 2위(3명) 20만원, 3위(6명) 15만원 등 총 100명을 선정, 인터파크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

한국 아동그림 작가 작품,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전시

3월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43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한국 아동그림 작가 4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고광삼, 박현정, 이승원, 이지선 등 한국작가 4명은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돼 일러스트레이션 전시관에서 세계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과 나란히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번 볼로냐아동도서전에는 37여개 출판사와 출판관련업체가 개별부스, 한국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여 700여종의 도서를 선보였다.

한국은 2004년 웅진닷컴의 『팔죽할멈과 호랑이』와 초방출판사의 『지하철은 달려온다』가 각각 라가치 픽션·논픽션 부문에서 우수상을, 2005년 재미마주의 『마법에 걸린 병』이 픽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해외소식 *

평양시 '만(萬)페이지 책임기' 발표회 개최

평양시 학생·청년의 '만(萬)페이지 책임기 경험 발표회'가 3월 22일과 24일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월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페이지 책임기 운동'을 시작한 지 45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평양의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1만6천여 명이 참가했다.

발표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초급 청년동맹 비서 김광호, 김책공업종합대 박금찬과 한덕수, 평양경공업대 김봉실, 평양건설건축대 허병수, 평양외국어대 리지연 등이 자신의 독서경험을 소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번 경험발표회를 "대학, 전문학교 학생·청년들이 더 열심히 책을 읽고 꾸준히 학습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좋은 계기"라고 평했다.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주간(National Library Week) 행사 후원



미국의 도서관주간행사는 1958년부터 매해 4월 미국도서관협회와 전국의 도서관들이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이다. 올 2006년에는 “Change your world @your library”라는 주제로 미국의 국가적인 도서관캠페인(The Campaign for America’s Libraries)인 @your library와 합동으로 4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진행됐다. [출처: <http://www.ala.org/ala/pio/campaign/nlw/NLW.html>]

미국 팰리세이즈파크 공립도서관, 한인 유명작가 포함된 그룹전 개최

미국 북부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공립도서관(palisadespark public library)에서 한인 작가 등 17명이 참여하는 그룹전이 3월 31일까지 열렸다.

‘ACT 2’라는 이름의 그룹전은 버겐카운티 주민, 대학 교수, 화랑 큐레이터, 전업작가 등 16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작가 중에는 앤드류 장(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 교수), 천세련(수필가, 화가), 최진아(리지펠드 피카소미술학교), 준 박(사진가), 송시선(뉴욕 머시롭켈러리 큐레이터), 김희정(저지시티미술학교 교수), 김희수, 신준우, 서머 박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ACT’ 그룹은 오는 12월 문학과 미술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ACT 3’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버겐카운티 인근에서 활동하는 시인들과 함께 시에 맞춰 그림을 그리고 시 낭송회를 갖는 형태이다.

북미연구도서관협회, 전자저널 일괄계약에 대한 조사 실시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는 2005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회원관 123관에 대해 Elsevier사, Wiley사 등 대기업 5개 출판사와의 전자저널의 일괄계약(bundle)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ARL은 2003년에도 같은 조사를 실시하여 일괄계약이 가지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웹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89개관(72%)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답을 한 93%가 5개 회사 중 1개사 이상과 계약하고 있고, 대다수는 복수사와 계약하고 있다. 상위 3사는 모두 응답 기관의 75% 이상과 계약하고 있어, 과점 상태가 되어 있었다.

계약 조건의 경향으로서는, (1)계약에 관한 비개시 조항, (2)취소를 금지하는 조항, (3)계약기간의 장기성, (4)전자판만의 계약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1)에 대해서는 응답 기관의 61%가 비개시 조항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수는 계약수 전체의 3분의 1정도 수준이다. (2)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전체의 불과 3%이며, 30% 이상은 완전히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에 대해서는 평균의 계약기간이 3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에 대해서는 인쇄판의 구독 취소에 대한 할인율은 약 50%정도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전 회의 조사에서도 각 도서관이 시장가격이나 선행 사례의 계약 조건을 알지 못하고, 정보 부족인 채 교섭에 들어간 것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실태가 한층 더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출처 : <http://www.arl.org/newsltr/245/bundle.html>, <http://www.arl.org/newsltr/235/snapshot.html>]

미국, 신간 요약 서비스 인기

미국에서 신간의 줄거리를 요약해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등장, 바쁜 책벌레들의 '독서 따라잡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월 28일(화) 보도했다.

미 캔자스주에 본부를 둔 '캐피톨 리더'는 관심 분야 신간들의 내용을 매주 목요일 전송한다. 전자우편 요약본에는 신간마다의 주제, 핵심, 흥미로운 대목까지 압축돼 있으며 8~12쪽 분량이고 가입료는 1년 간 99.95달러 정도이다.

이런 사이트들은 주로 경영자, 정치인, 기독교인과 자기개발에 열심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구글, 서적 온라인 액세스권 판매 검토

구글은 '구글 북 서치(Google Book Search)'에서 저작권이 있는 원문의 온라인 액세스권 판매를 미국과 영국의 출판사에 제안하였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글 북 서치'에서는 구글이 서비스 저작권을 가진 서적에 대해 요약본을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서적 전체를 읽을 수는 없었다. 만약 서적 전체를 읽고 싶다면 온라인상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구글 사이트 외의 서점 등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구글은 미국과 영국의 출판사들과 협의, 서적의 온라인 액세스권의 가격을 정하여 이용자가 브라우저상에서 곧바로 서적을 읽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구입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서적의 복제를 보존하거나 서적의 일부를 인쇄할 수 없다.

구글의 이러한 서비스는 아마존닷컴(Amazon.com)과 세계 최대의 출판사인 랜덤 하우스(Random House)가 작년 가을 선보인 계획과 유사하다. 두 회사는 서적의 일부에서 전체까지 서적의 온라인 액세스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에서는 판매하는 페이지의 가격을 서적 판매점이 정한다.

드림웍스 필름도서관 매각

2005년 말 드림웍스를 인수한 파라마운트의 모회사인 비아콤은 3월 17일(금) 드림웍스 필름 도서관을 투자가 조지 소로스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작년 말 드림웍스를 16억 달러에 인수기로 했으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드림웍스의 필름도서관 매각을 추진해왔다.

소로스 측은 이번 드림웍스 필름도서관 인수로 '글래디에이터', '아메리칸 뷰티', '우주전쟁',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 드림웍스 필름도서관이 소유한 59개 작품의 판권을 소유하게 됐다.

유럽위원회, 유럽 디지털도서관 계획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발표

유럽연합(이하 EU)의 행정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이하 EC)는 유럽 디지털도서관 계획에 관해 온라인 조사 결과를 3월 2일 발표했다.

조사된 의견은 225건으로 의견의 50%가 도서관·박물관·문서관 등의 관계자가 제안했고 출판업자, 저작권자, 대학 관계자 등도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도서관 계획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는 저작권법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문화 시설측과 현행의 법제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저작권자측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화에 충분한 투자, 유럽 전체에서의 협력 체제, 다언어에 대한 대응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유럽 디지털도서관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유럽 도서관의 시스템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EU 안의 국립도서관, 박물관, 문서관 등과의 협력으로 2008년에는 200만점, 2010년 600만점의 도서, 영화 필름, 사진, 자필원고 등을 웹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2006년 말을 목표로 유럽 전체의 자료 디지털화 네트워크 형성, 디지털도서관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 <http://europa.eu.int/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6/253&type=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영국, “Love Libraries” 캠페인 시작



영국에서는 문화담당대신이 3월 22일 새로운 세기에 부합하는 도서관 서비스 비전을 제안하고 도서관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Love Libraries” 캠페인을 시작했다.

3개의 도서관(Coldharbour Library, Newquay Library, Richmond Library)을 12주 동안 리모델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노후화된 건물과 내장을 새롭게 고치고, 온라인 대출을 확대하며, 장서 재평가, 개관시간 재고 등의 내용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책과 관련한 마케팅 전문가 3명을 등용했다.

[출처 : <http://www.lovelibraries.co.uk/>]

영국국가도서관, 중소기업이나 기업가에 지원 강화

영국국가도서관(BL)은 3월 9일 런던시의 경제·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런던개발청으로부터의 100만 파운드(약20억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지

적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신설의 기업, 기업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 산업, 금융 등 각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40종, 특허 자료 5천만 점을 포함한 비즈니스·지적 재산 관계의 자료를 갖추고 정보 전문가가 이용자를 돕는다. 또한 영국국가도서관이나 유관 기관에 강의, 외부의 전문 상담가 소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리고 센터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런던 시 이외로부터의 이용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국국가도서관과 런던개발청은 이 센터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책에 뛰어난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에 2만5천건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http://www.bl.uk/news/2006/pressrelease20060308.html>]

영국, 레퍼런스·툴의 일괄 이용 계약 MLA의 “Reference Online” 서비스 개시

영국 박물관·도서관·문서관위원회(이하 MLA :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는 2월 20일 국내의 공공도서관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신서비스 “Reference Online”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Reference Online은 14개의 출판사가 제공하는 백과사전 등의 사전류, 신문, 비즈니스 정보, 법률 정보 등 구독 수속을 필요로 하는 온라인 형식의 레퍼런스툴을 MLA가 일괄로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이 계약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과 100만 파운드(약 20억원) 이상의 비용 삭감이 전망된다.

MLA는 도서구입과정의 합리화를 목표로 2005년부터 도서공동구입을 구상·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Reference Online 또한 그 일환이다. [출처 : <http://www.mla.gov.uk/webdav/harmonise?Page/@id=82&Document/@id=23868>]

영국 도서관계,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염려 표명

영국국가도서관(이하 BL)과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이하 CILIP)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문서관 저작권 동맹(Libraries and Archives Copyright Alliance)은 2월 6일(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를 표명한 문서를 공표했다. 이것은 영국 의회 산하 저작권관리협의회(APIG : All Party Parliamentary Internet Group)가 작년 11월부터 조사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에 의한 복제 방지 기능이나 그 회피 금지 규정에 의해 도서관이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전통적으로 해 온 복제의 작성·제공 기능의 제한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BL은 2020년에는 출판물의 90%가 디지털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예측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어 DRM은 장기적인 보존과 접근성의 확보라는 도서관의 역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고, 저작자의 권리와 공익성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서관 특권 조항이 디지털 출판물에도 적용되도록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DRM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미국도서관협회(ALA)가 DRM에 대한 사서 전용 가이드를 발행한 바 있다. [출처 : [http://www.bl.uk/news/2006/pressrelease20060206.html/](http://www.bl.uk/news/2006/pressrelease20060206.html) <http://www.ala.org/ala/washoff/WOissues/copyrightb/digitalrights/DRMfinal.pdf>]

영국 닥터 윌리엄스 신학도서관, 셰익스피어 희귀본 희곡집 경매

영문학에서 매우 귀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희귀본 셰익스피어 희곡집이 런던 소더비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이 희곡집은 셰익스피어 희곡들을 모아 놓은 완벽

한 첫 번째 폴리오판형의 책으로 셰익스피어 사후 7년 만인 1623년 약 750부가 인쇄됐다. 그러나 이 중 3분의 1만 남았고, 남아 있는 것들도 대부분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셰익스피어 사후 친구들이 모여 만든 이 희곡집에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36편이 들어 있다. 36편 중 『십이야』, 『맥베스』를 포함한 18편은 이때 처음으로 인쇄됐다.

이 책을 소장한 닥터 윌리엄스 신학도서관은 이 책의 판매로 도서관의 재정난을 해결해 역사적으로 귀중한 원고와 책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도서관은 이 책의 판매가를 약 300만 파운드(약 50억9천100만원)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 13일 경매에 앞서 4~5월 중 런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베이징, 홍콩의 소더비 사무소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NII, 일본 연구자들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이하 NII)는 일본의 대학 연구자의 연구 정보 수집 방법이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립대학 등의 연구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613명이 응답했다.

결과를 보면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인지도는 29%로 미국에 비해 낮고, 향후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 등에 자기 자신으로 연구 성과를 등록하는 셀프·아카이빙(archiving)에 대해서도 '값싼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5사람 중 1사람이며, '존재를 몰랐다' 가 약 60%에 달했다.

NII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아직 일본 연구자들은 오픈 액세스에 대해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ii.ac.jp/sparc/shiryuu/index.html>]

일본, 활자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인 활동

일본에서는 2005년 7월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TV, 영화, 컴퓨터게임 등 멀티미디어의 보급확산과 함께 국민들의 읽고 쓰는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민들의 '활자(活字) 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공립도서관의 설치와 도서 확충, 사서교사 등 관련 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해력·작문력 향상을 위해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각 신문사들 또한 새로운 활자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세기 활자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프로젝트 일환으로 '책을 읽읍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유명인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거나 좌담회를 갖는 활동부터 시작했다. 또한 마이니치신문도 매년 '독서감상문 콘테스트'를 펼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00만명의 학생들이 이 콘테스트에 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오사카 국제아동도서관, 한국 그림책 100편 무료 대출

일본 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이 한국 그림책 100편을 장르별로 정선하여 세트로 무료 대출을 하고 있다.

2005년 4월부터 대출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전국 도서관 및 학교, 자원봉사 단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대출하는 도서는 전문가가 최근 출판물 중에서 아이들이 친숙해할 만한 것을 선정하여 '신화', '생활' 등 테마별로 재구성한 것으로 원서 71권, 번역서 32권이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해설과 내용을 요약한 팜플릿도 준비되어 있다.

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은 5월 중에 논문집 『한국

의 그림책』(가칭)을 한·일·영어판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논문집에는 한국 그림책의 역사적 의의와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논한 논문 8편을 수록할 계획이다.

* 향후 도서관계 행사 *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

- 기간 : 4월 22일(토) - 6월 30일(금)
- 주최 : 국제아동도서관협의회 한국위원회
- 문의 : ☎ 031-582-5118

파주 어린이 책 잔치

- 기간 : 5월 5일(금) - 14일(일)
- 주최 : 출판도시문화재단
- 문의 : ☎ 031-955-0063

영월 책 축제

- 기간 : 5월 20일(토) - 21일(일)
- 주최 : 영월책박물관
- 문의 : ☎ 033-372-1713

한국비블리아학회, 2006년 춘계학술발표회

- 일시 : 2006년 5월 26일(금) 13:00
-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 주제 : 도서관과 독서교육 방향 : 독서(운동), 독서교육 그리고 독서치료
- 문의 : <http://www.biblia.or.kr/index.html>

* 신설도서관 *

영월 주천공공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3. 7.
- 면 적 : 연면적 700여㎡
- 관 장 : 주천면장 통합 관리
- 주 소 : (230-85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246-6번지
- 전 화 : 031-370-1640~1641
- 팩 스 : 033-372-8076
- 특 징 : 지상 2층 규모, 장서 10,550권, **1층**에는 종합자료실·어린이열람실이, **2층**에는 일반열람실·자유열람석이 있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완주군립 고산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3. 9.
- 면 적 : 연 면 적 : 1,154㎡ (345평)
- 관 장 : 정주천
- 주 소 : (565-864)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715-3
- 전 화 : 063-262-3880
- 팩 스 : 063-262-3881
- 홈페이지 : <http://lib.wanju.go.kr>(완주군도서관)



- 특 징 : 지상3층 규모, 15,000여권의 장서와 RFID 시스템을 갖춘.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디지털자료실·간행물실이, **2층**에는 종합자료실·세미나실이, **3층**에는 일반열람실이 있음. 자료실 **휴관일**은 법정 공휴일과 매주 일요일

아산어린이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3. 15.
- 면 적 : 170평
- 관 장 : 박선범
- 주 소 : (336-020)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181-15 2층, 3층
- 전 화 : 041-537-3966
- 팩 스 : 041-537-3966
- 홈페이지 : <http://www.ascl.or.kr>(아산시립도서관)
- 특 징 : 농촌지도소 3층 건물 2층과 3층에 위치, 장서 12,000여 권, **2층**에는 종합자료실·유아방(알콩달콩 이야기나라), **3층**에는 강당·소규모 독서공간이 있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포천시립일동도서관



- 개관일자 : 2006. 3. 17.
- 면 적 : 건물연면적1997.59m²
- 관 장 : 오각균
- 주 소 : (487-851)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4-3번지
- 전 화 : 031-538-3971
- 팩 스 : 031-538-3975

- 홈페이지 : <http://lib.pcs21.net>
- 특 징 :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장서 19,092권과 5,227점의 비도서. **지상1층**에는 어린이열람실·유아열람실·세미나실·제1열람실이, **지상2층**에는 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제2열람실·사무실이,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가 있음.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과 개관기념일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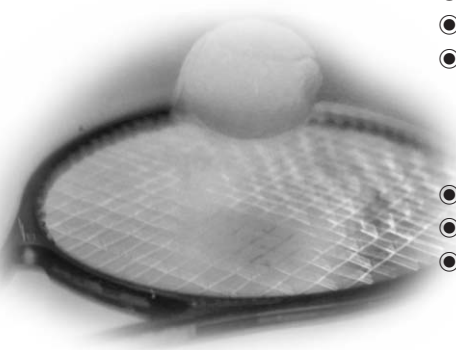
2006년 3월호 12쪽

- 청장 김진춘
- 교육감 김진춘

2006년 3월호 24쪽

- 부평기적의도서관
- 무휴간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 바로잡습니다.

제 3 회 한국도서관협회장배 전국도서관 사서테니스대회



- 기간 : 2006년 5월 26일(금) ~ 27일(토)
- 장소 : 서울 한양대학교 테니스 코트(서울)
- 주최 : 한국도서관협회
- 주관 : 전국도서관사서테니스회
- 후원 : 서울정보시스템, 한양대학교
- 경기종목 : 복식 개인전(경력에 관계없이 본인이 출전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집현전팀 : 경력 10년 이상인 상위그룹
 - 규장각팀 : 경력 10년 이하의 초·중급 그룹
- 참가비 : 20,000원
- 시상 : 우승, 준우승, 3위(상패 및 부상), 기타 기념품
- 참가신청 및 문의 : 총무 - 노장오(동국대 중앙도서관) (02-2260-3456, 010-8339-3454, nosara@dongguk.edu)